



결혼생활과 성생활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남성에게 일생 중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단연 '신혼 초' 라고 답을 할 것이다. 신혼 초에는 얼마나 섹스를 하고 싶던지 퇴근 후면 칼퇴근은 물론이고 저녁 밥상을 미처 치우기도 전에 관계를 하자고 보챈다.

과연 신혼 초에 성관계를 얼마나 많이 할까. 평생동안 할 횟수를 신혼 때 모조리 다해 버린다고 한다.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항아리에 검정콩을 넣기로 하고 결혼 일년 뒤부터는 할 때마다 반대로 하나씩 꺼낸다고 해도 평생 미처 다 못 꺼낸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신혼 초기에 매일 밤마다 치열한 전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신혼이 지나면서 왕성했던 성관계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진료를 하다보면 남편이 신혼 초에는 매일같이 요구하더니 요즘 들어 한 달에 한 두 번 어쩌다 요구하며 본인이 하자고 하면 돌아누워 버린다고 찾아오는 여성들이 있다. 남편이 달라진 게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냐며 고민을 상담한다. 줄어드는 이유는 성적 호기심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일부는 남성의 성적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남성들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 바로 골프와 성생활이라고 한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성적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20대에는 성적 왕성함과는 달리 성적 미숙함과 더불어 기회가 별로 없다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30대에는 성경험이 많아지면서 성적 호기심이 떨어지고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30대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서 성행태에 영향을 주며 직장 내에 스트레스는 성욕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40대가 되면 상대에게 포근함을 줄 수 있고 성적으로 완숙함을 자랑한다. 그러나 주위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이상으로 인하여 발기능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 부인이 샤워하는 소리가 두려워진다는 말이 실감난다면 온갖 정력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일부 남성들은 집사람과는 관계가 안 되는데 밖에서 다른 여성과는 잘 된다고 말한다. 통상 40대 남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이 시기에 많은 남성들이 애인을 두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집사람과의 섹스는 단조롭고 가뜩이나 떨어진 발기력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여성과는 남의 눈을 피해 만난다는 짜릿한 흥분과 호기심은 떨어진 성적 능력을 깨워주는 일시적 효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이런 것이 발기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발기능력의 감소로 고민하던 많은 남성에게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발기주사약물이나 음경보형물수술 등은 훌륭한 치료방법이다. 특히 음경보형물은 다른 치료방법으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 영구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이를 먹어서도 젊어서와 같은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생활 등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㉞

